

월간 해양기상정보

# 2021년 4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1년 4월 1일

## 해양기상정보

- 해상 순별(최근 5년간('16~'20년) 4월) 특성 및 예측
  - (상순)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서해·남해·동해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 해상은 낮았음
  - (중순)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하순)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예측) 서해와 남해는 상순에 파고가 약간 높을것으로 예측되며, 동해와 제주도해상에서는 상순에 높거나 매우 높을 수 있음. 중순과 하순은 전체 해역에서 다소 낮을것으로 예상됨
    - ※ 유의파고 예측정보는 시범운영 중이며, 추후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6~'20년) 4월)
  - 7.0일(상순 2.5일 / 중순 2.4일 / 하순 2.1일)로 전월(9.0일)보다 2.0일 적음
- 해수면온도('21년 3월 실황, '21년 4월 예측)
  - 3월 실황: 서해(4.0~ 9.2℃) / 남해(12.5~15.2℃) / 동해(10.7~15.8℃)
  - 4월 예측: 서해(7.0~ 13.0℃) / 남해(13.0~17.0℃) / 동해(13.0~18.0℃)
- 조석정보(고극조위, '21년 4월)
  - 인천: 29일(937cm) / 완도: 28일(405cm) / 포항: 30일(36cm)

##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6~'20년))
  - 전체 17,031척 중 4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1,237척(7.3%)으로 연평균 247.4척의 사고가 발생
  - ☞ 봄철 원거리 또는 무리한 운항사례가 늘어나면서 좌초 및 화재·폭발 사고 대폭증가 등 해양사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4월부터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 증가 추세 뚜렷

## 어업정보

- 4월 어황 전망
  - 갈치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멸치는 평년수준, 고등어는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전갱이, 살오징어,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1년 4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1년 5월 3일에 발표됩니다.

#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4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4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 지점임

○ 최근 5년간('16~'20년) 4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8m(상순 0.8m / 중순 0.8m / 하순 0.8m)로 전월(0.9m)보다 0.1m 낮음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4m (전월보다 0.1m 낮음)	1.0m (전월보다 0.3m 낮음)
남 해	0.5m (전월과 비슷)	1.6m (전월보다 0.1m 낮음)
동 해	0.8m (전월보다 0.1m 낮음)	1.9m (전월보다 0.1m 낮음)
제주도	0.7m (전월보다 0.1m 낮음)	1.9m (전월보다 0.2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3월 상순에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서해·남해·동해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 해상은 낮았음
- 중순에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하순에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5	0.4	0.4	1.1	0.9	0.9
남 해	0.6	0.6	0.5	1.7	1.7	1.6
동 해	0.8	0.9	0.8	1.8	2.0	1.8
제주도	0.7	0.7	0.7	2.0	1.9	1.8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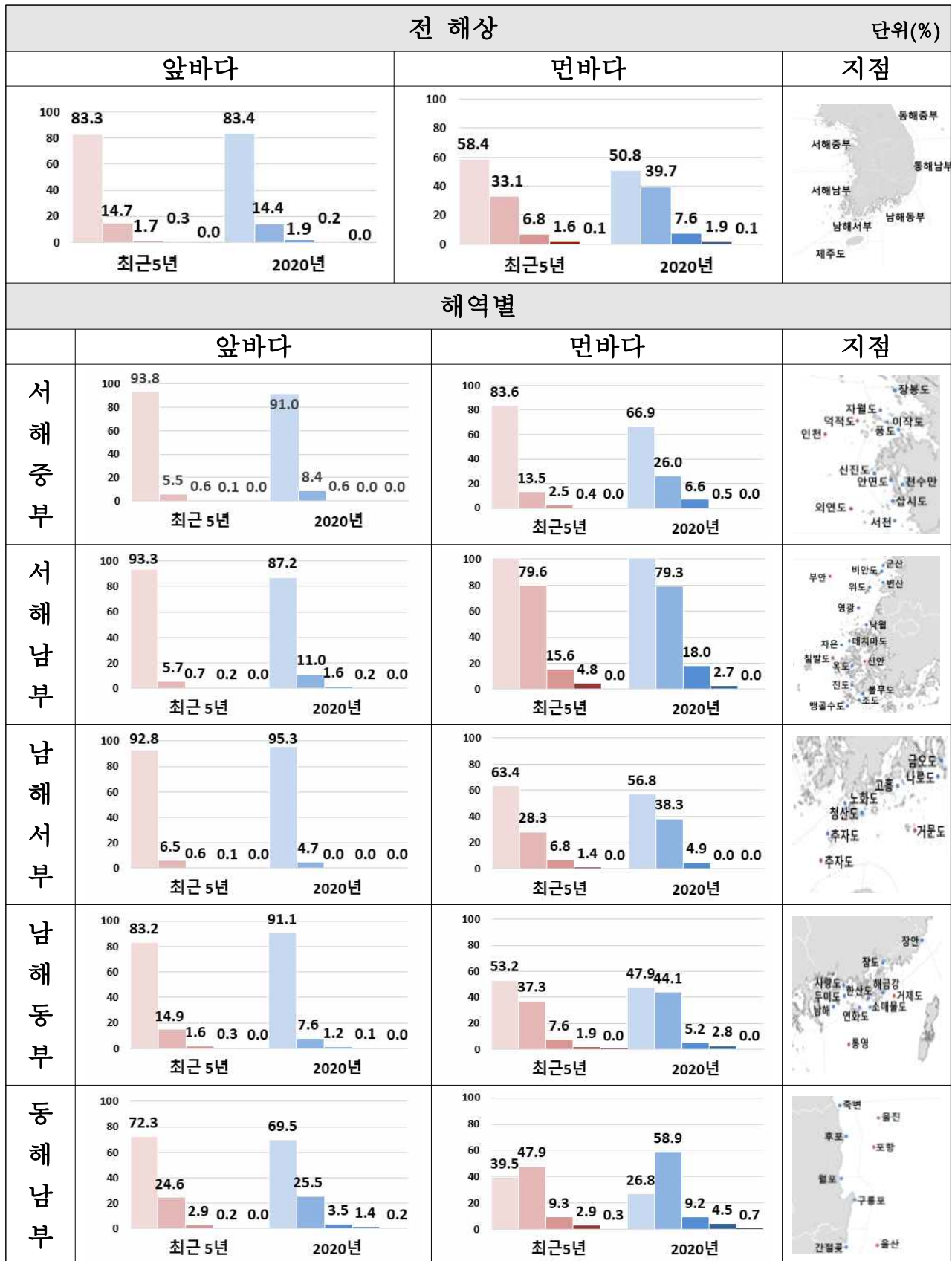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4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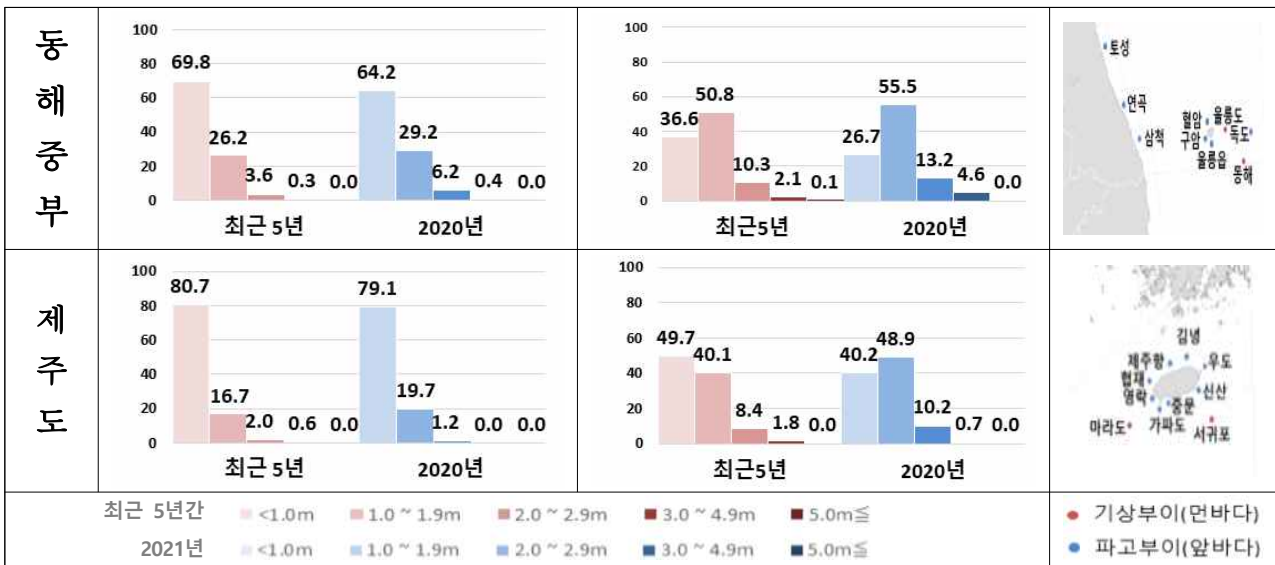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2.4m / 먼바다 2.6m
- 남 해: 앞바다 1.9m / 먼바다 3.9m
- 동 해: 앞바다 2.4m / 먼바다 4.7m
- 제주도: 앞바다 2.5m / 먼바다 4.6m

○ 관측 이래 4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12.4.3.	3.5 (6.6)	칠발도	'13.4.7.	3.9 (5.9)	부안	'16.4.17.	2.9 (5.5)
남 해	거문도	'12.4.21.	3.4 (5.3)	거제도	'19.4.10.	3.1 (5.2)	추자도	'19.4.9.	2.6 (4.9)
동 해	울릉도	'12.4.3.	4.0 (7.7)	동해	'13.4.7.	4.9 (7.3)	동해	'12.4.3.	3.7 (6.8)
제주도	마라도	'12.4.3.	4.4 (6.7)	마라도	'13.4.6.	4.1 (5.5)	서귀포	'16.4.17.	2.6 (4.6)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4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4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83.3%, 2m이상 2.0%  
(먼바다) 1m미만 58.4%, 2m이상 8.5%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83.4%, 2m이상 2.2%  
(먼바다) 1m미만 50.8%, 2m이상 9.5%

○ 최근 5년간('16~'20년) 4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93.6%, 2m이상 0.8% (먼바다) 1m미만 81.9%, 2m이상 3.4%
- 남해: (앞바다) 1m미만 87.0%, 2m이상 1.4% (먼바다) 1m미만 59.6%, 2m이상 8.7%
- 동해: (앞바다) 1m미만 70.6%, 2m이상 3.7% (먼바다) 1m미만 37.8%, 2m이상 12.6%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80.7%, 2m이상 2.6% (먼바다) 1m미만 49.7%, 2m이상 10.2%

○ 최근 5년간('16~'20년) 4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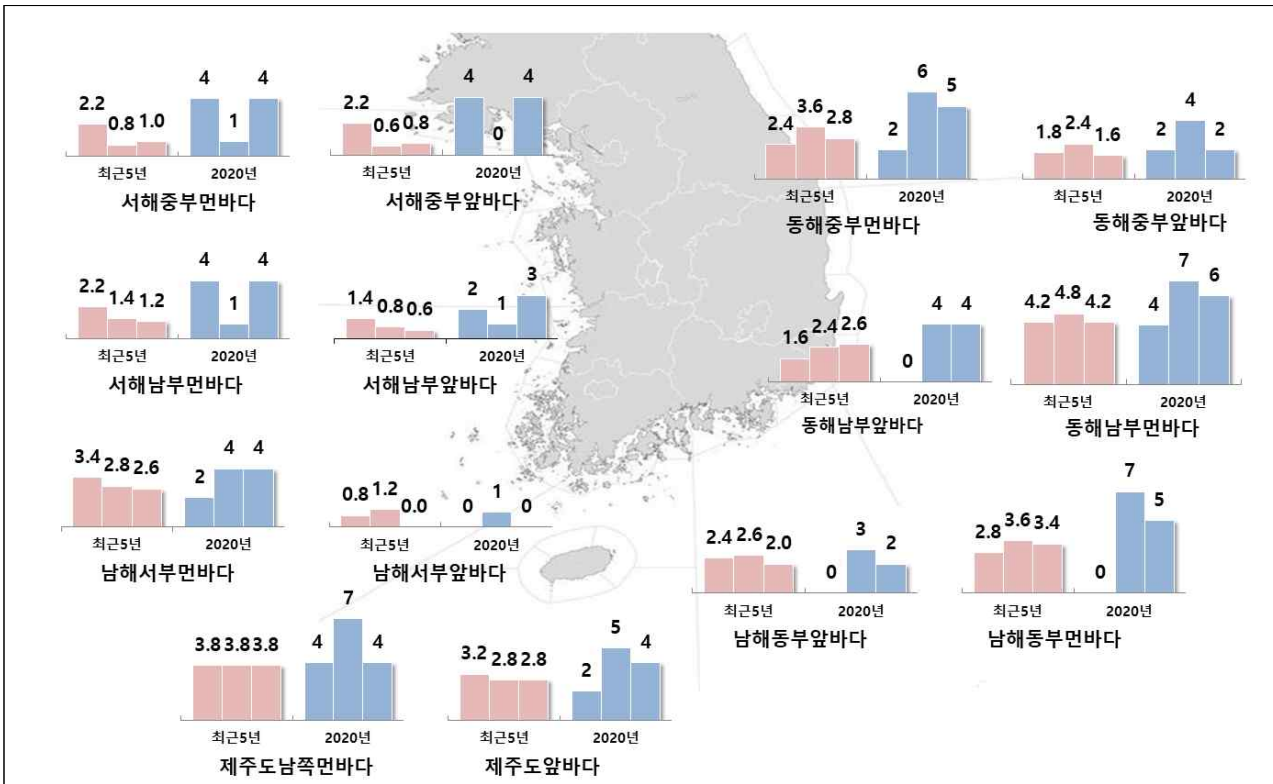
- 최근 5년: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3.8%) / (2.0m이상) 서해남부 먼바다(20.4%)
- 지난해: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5.3%) / (2.0m이상) 서해남부 먼바다(20.7%)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인*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잡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지점은 최근 5년 통계 추가지점이며, \_\_지점은 지난해('20년) 통계 추가지점임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4월 풍랑특보 일수



<최근 5년간('16~'20년) 및 '20년 4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4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7.0일, 전월(9.0일)보다 2.0일 적음
- 지난해: 9.4일, 전월(11.1일)보다 1.7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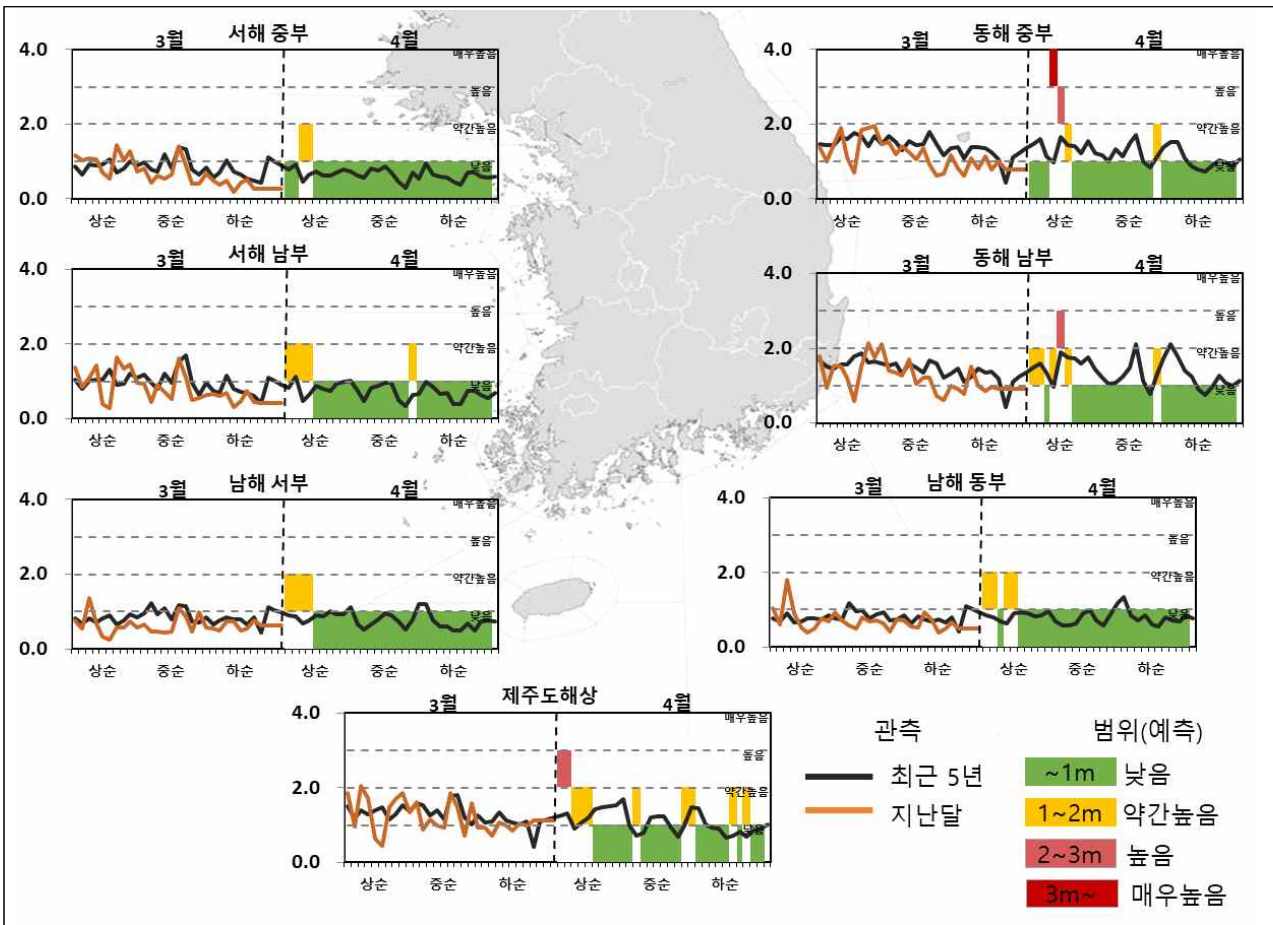
○ 4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2.5일 / 중순 2.4일 / 하순 2.1일
- 지난해: 상순 2.1일 / 중순 3.6일 / 하순 3.6일

○ 4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제주도남쪽 먼바다(20.2일) / 남해서부앞바다(3.6일)
- 지난해: 동해남부 먼바다(17.0일) / 남해서부앞바다(1.0일)

■ 유의파고 최근 5년('16~'20년), 지난달(3월) 관측 및 4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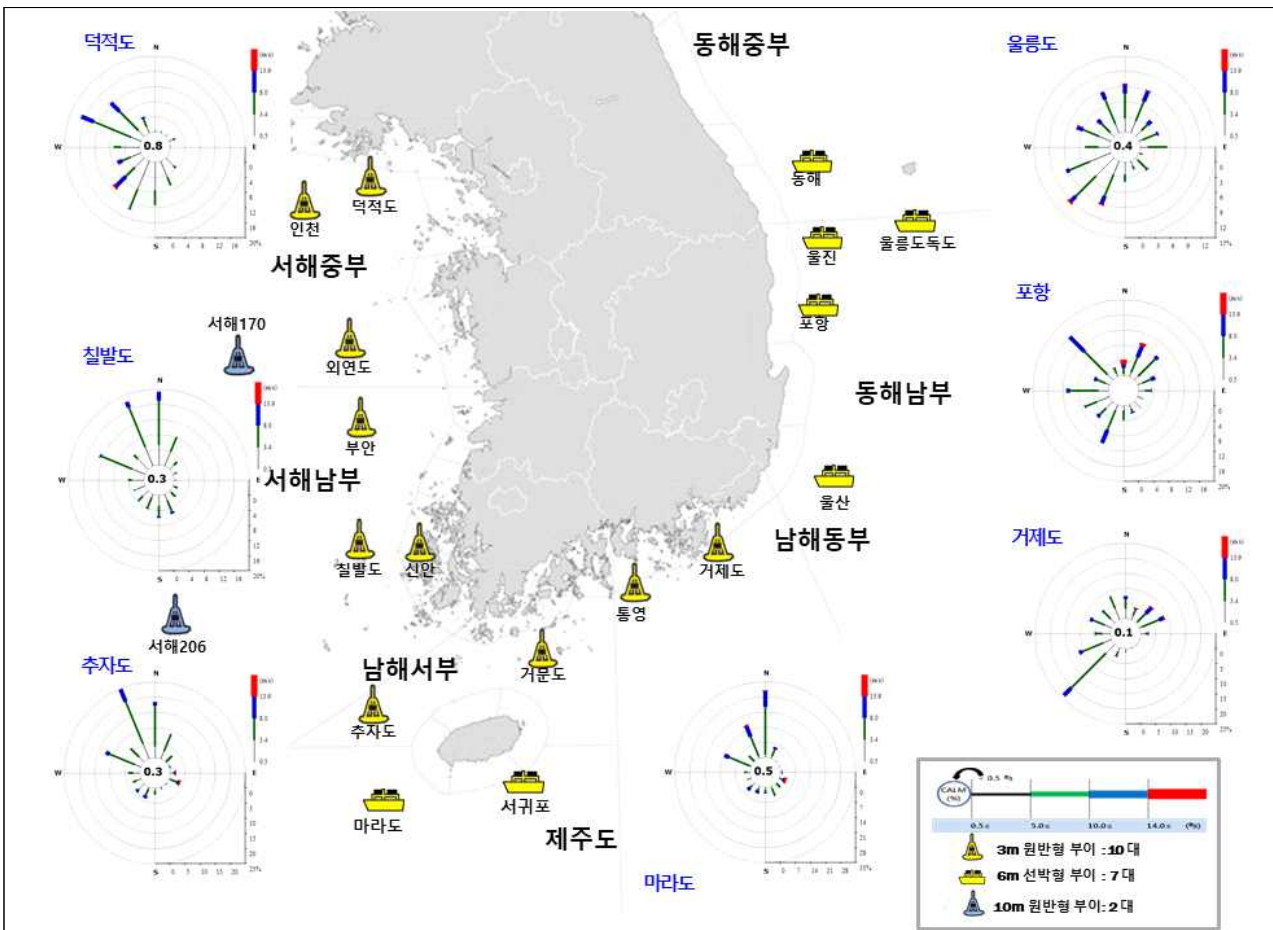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과 지난달 관측값 및 4월 예측 유의파고 >

- ☞ 유의파고 관측은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5년(—)은 '16~'20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1년 3월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결과의 해역별 평균값으로, 구간값으로 표출함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예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율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활용 관측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지난해('20년)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0년 4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20년) 4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W~NW	0.9	44.0	44.4	10.6	0.1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서해남부	NW~NE	0.7	43.1	50.3	5.9	0.1	칠발도, 부안, 신안, 서해206
남해서부	W~N	0.2	24.0	63.6	12.0	0.4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SW~NW	0.1	27.0	58.5	13.9	0.6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S~E	0.6	34.9	50.3	13.2	1.0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S~E	0.4	31.1	49.0	16.3	3.3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NW~N	0.4	18.7	59.4	20.4	1.2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0.5	31.8	53.6	13.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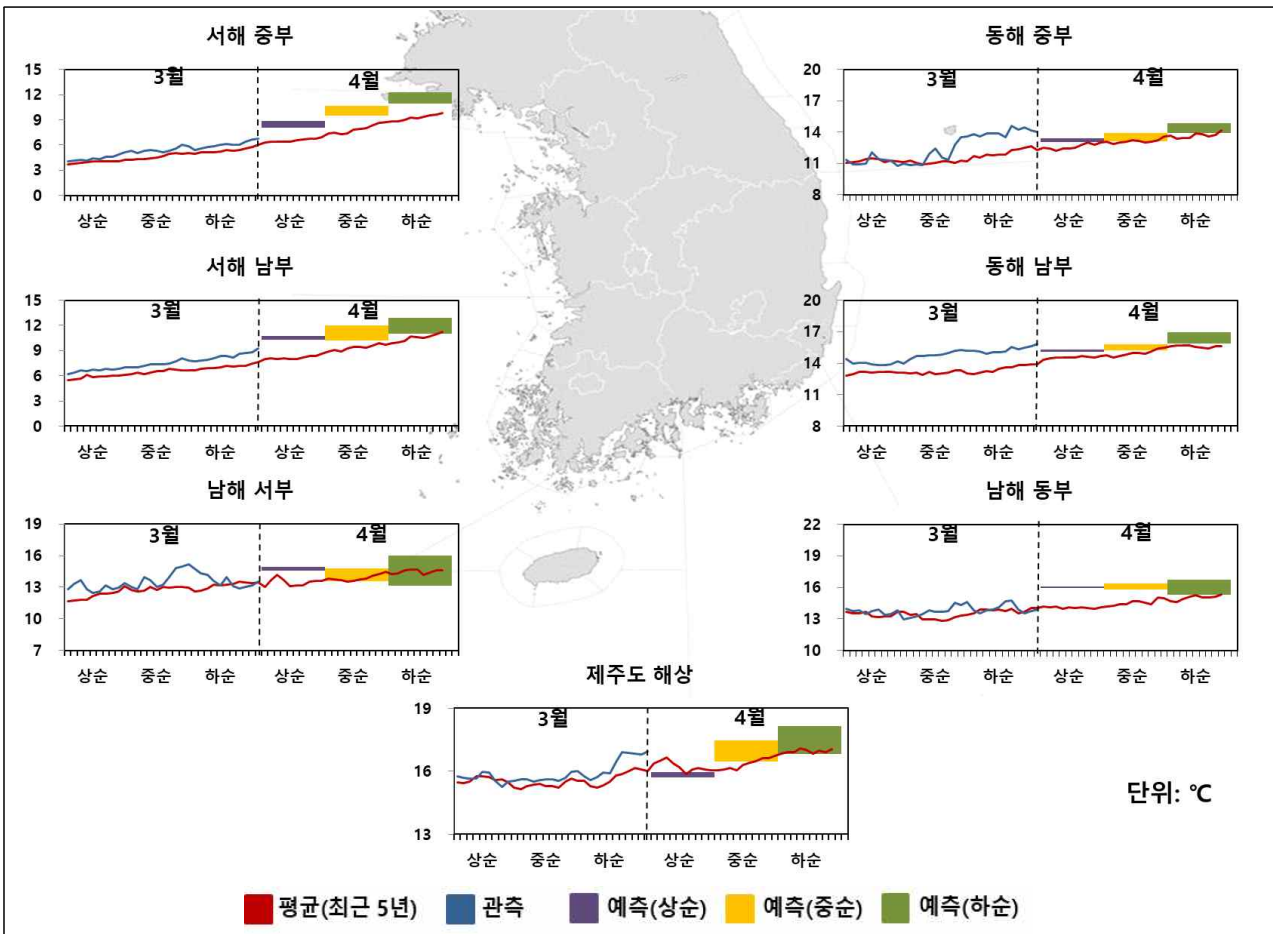
[참고] \_지점은 지난해('20년) 통계 추가지점임

- 주풍계: 서해와 남해 해역은 서풍~북풍계열 바람이 우세하였고, 제주도남쪽 해역은 북풍계열, 동해해역은 남~동풍계열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32.3% / 5.0 ~ 9.9m/s 53.6% / 10.0m/s 이상 14.1%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5.0m/s 미만: 서해중부(44.9%) · 10.0m/s 이상: 제주도남쪽(21.5%)

☞ 지난해('20년) 4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 해수면온도 지난달(3월) 관측 및 4월 예측



< 해수면온도 최근 5년 평균, 21년 지난달 관측값 및 21년 4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6~'20년) 3~4월 관측값의 평균, '관측'은 지난달('21년 3월)의 기상부이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칠발도, 부안\*)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통영\*), 제주도(마라도, 서귀포\*)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울산\*, 울진\*)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달 ('21년 3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3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4.0 ~ 5.1 (+0.5)	5.0 ~ 6.1 (+0.8)	5.4 ~ 6.8 (+0.7)
서해남부	6.2 ~ 7.0 (+0.8)	7.0 ~ 8.1 (+0.9)	7.7 ~ 9.2 (+1.2)
동해중부	10.7 ~ 12.0 (±0.0)	10.8 ~ 13.6 (+0.9)	13.5 ~ 14.6 (+1.9)
동해남부	13.8 ~ 14.4 (+0.9)	14.4 ~ 15.3 (+1.8)	14.9 ~ 15.8 (+1.8)
남해서부	12.5 ~ 13.7 (+0.8)	12.8 ~ 15.2 (+1.0)	12.9 ~ 14.7 (+0.4)
남해동부	12.9 ~ 14.0 (+0.2)	13.1 ~ 14.6 (+0.7)	13.5 ~ 14.8 (+0.2)
제주도남쪽	15.3 ~ 16.0 (+0.1)	15.5 ~ 16.0 (+0.3)	15.6 ~ 17.0 (+0.6)

○ 최근 5년간('16~'20년) 4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21년 4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4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21년 4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인천	6.3 ~ 9.8	서해중부	7 ~ 13
칠발도, 부안	7.8 ~ 11.3	서해남부	9 ~ 13
울릉도, 동해	12.2 ~ 14.2	동해중부	13 ~ 16
포항, 울산, 울진	14.1 ~ 15.7	동해남부	15 ~ 18
거문도, 추자도	13.0 ~ 14.7	남해서부	13 ~ 17
거제도, 통영	14.0 ~ 15.3	남해동부	15 ~ 17
마라도, 서귀포	15.9 ~ 17.1	제주도남쪽	15 ~ 19

□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온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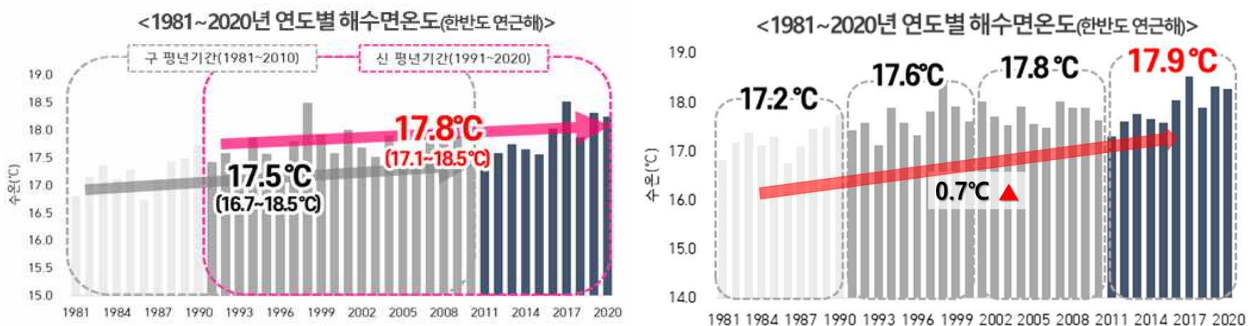
**한반도 연근해 해수면온도 변화 분석**  
**최근 30년('91~'20)이 이전 30년('81~'10)보다 0.3℃ ▲**

○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온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변 최근 30년 평균 해수면온도 변화와 2010년 전후의 해수면온도 변화 추세를 분석함

○ 한반도 연근해\* 평균 해수면온도 분석 결과

\* 한반도 연근해: 120~135°E, 28~45°N 영역

- 지속적인 수온상승으로 최근 30년 평균 해수면온도가 기존 30년보다 0.3℃ 높음
- 해수면온도를 '81~'20년까지 10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20년이 가장 높았으며, '81~'90년보다 0.7℃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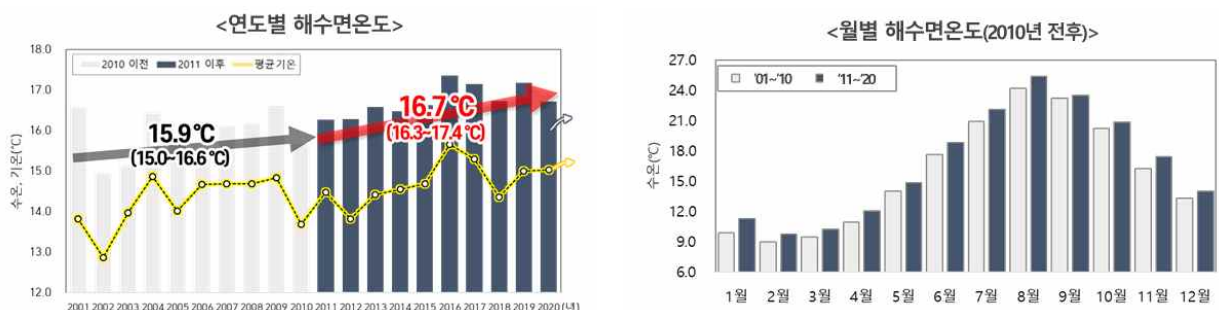


<한반도 연근해 연도별 해수면온도 변화>

○ 우리나라 주변 해양기상부이 8지점\*의 관측 해수면온도 비교 결과

\* 해양기상부이 지점: 서해(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남해(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동해, 포항) 8지점

- 평균 해수면온도는 '01~'10년(15.9℃)보다 '11~'20년(16.7℃)이 0.8℃ 높음
- 10년 평균 해수면온도를 월별로 비교하였을 때, '01~'10년보다 '11~'20년이 높았으며, 특히 1월에 가장 크게 상승(1.4℃)하였음



<해양기상부이 해수면온도 변화>

##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4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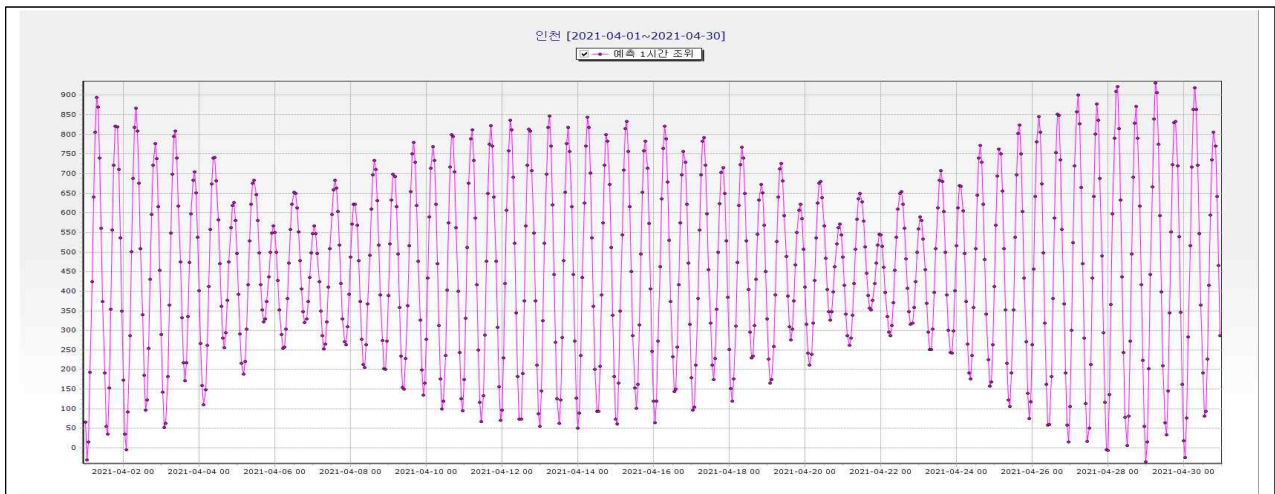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4월 29일에 93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4월 28일에 405cm, 동해안의 포항은 4월 30일에 3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4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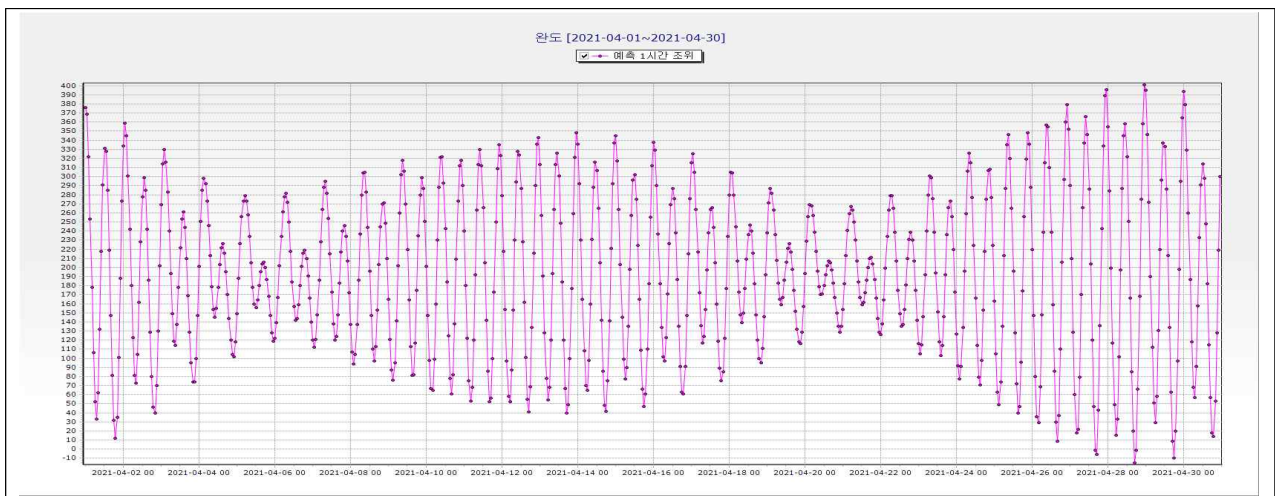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2.1)		대조기(삭 2.12)		대조기(망 2.27)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 천	07:17	899	05:16	840	04:52	902
	안 흥	06:12	686	04:16	614	03:47	681
	군 산	05:32	702	03:33	639	03:05	697
	목 포	04:45	471	02:29	419	02:08	464
남해안	제 주	00:56	272	23:16	245	23:12	290
	완 도	00:20	379	22:41	345	22:38	399
	마 산	23:50	180	21:28	179	21:36	204
	부 산	10:43	112	20:56	112	20:56	129
동해안	포 항	08:30	19	04:24, 16:43	19	04:48, 15:39	28
	속 초	17:15	25	03:16, 15:22	23	14:56	28
	울릉도	16:52	14	03:06	17	14:29	23

☞ 2021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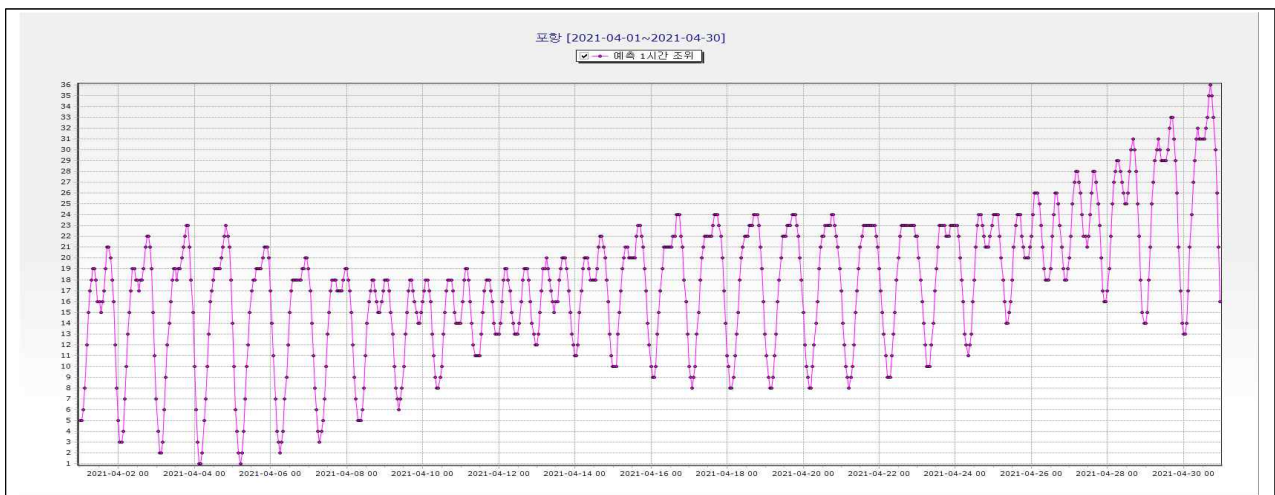
### 3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1년 4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1년 4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1년 4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해양안전정보

## 해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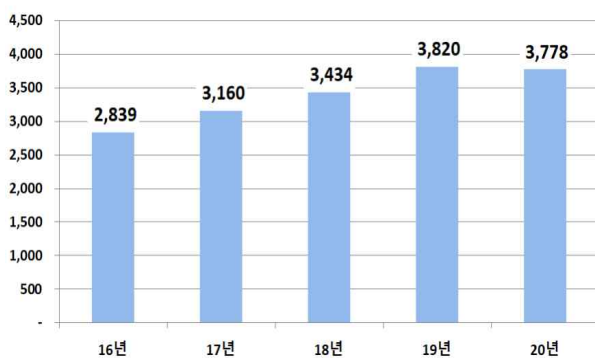
제공: 해양경찰청

### ■ 최근 5년간('16~'20년) 해상조난사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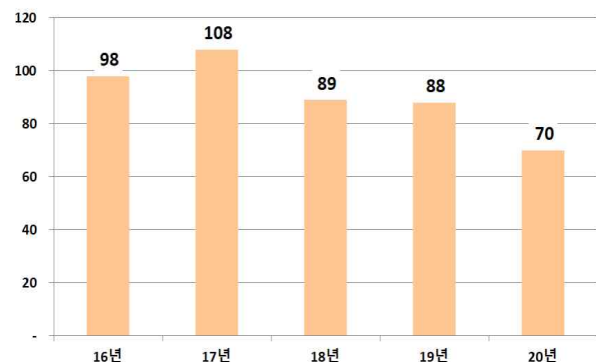
최근 5년간 17,031척(연평균 3,406.2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98,996명 중 453명(사망 295명, 실종 1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 망	실 종
계	17,031	98,996	16,730	98,543	453	295	158
2020년	3,778	21,497	3,710	21,427	70	50	20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96	3,385	19,507	89	56	33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20년 해상조난사고 현황은 잠정 통계임



< 사고발생 현황 >



< 인명피해 현황 >

☞ 2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 ■ 해상조난사고 분석

- (총괄)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17,031척 중 4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1,237척(7.3%)으로 연 평균 247.4척의 사고가 발생
  - \* 최근 5년간 4월에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29명
- (선종별) 어선 55.8%(690척), 레저선박 18.2%(225척), 화물선 4.7%(58척) 順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충돌 9.9%(122척), 침수 6.9%(85척), 좌초 5.9%(73척) 順으로 발생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등
- (원인별)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40.9%(506척), 운항부주의 30.6%(379척), 관리소홀 9.9%(123척) 順으로 발생

##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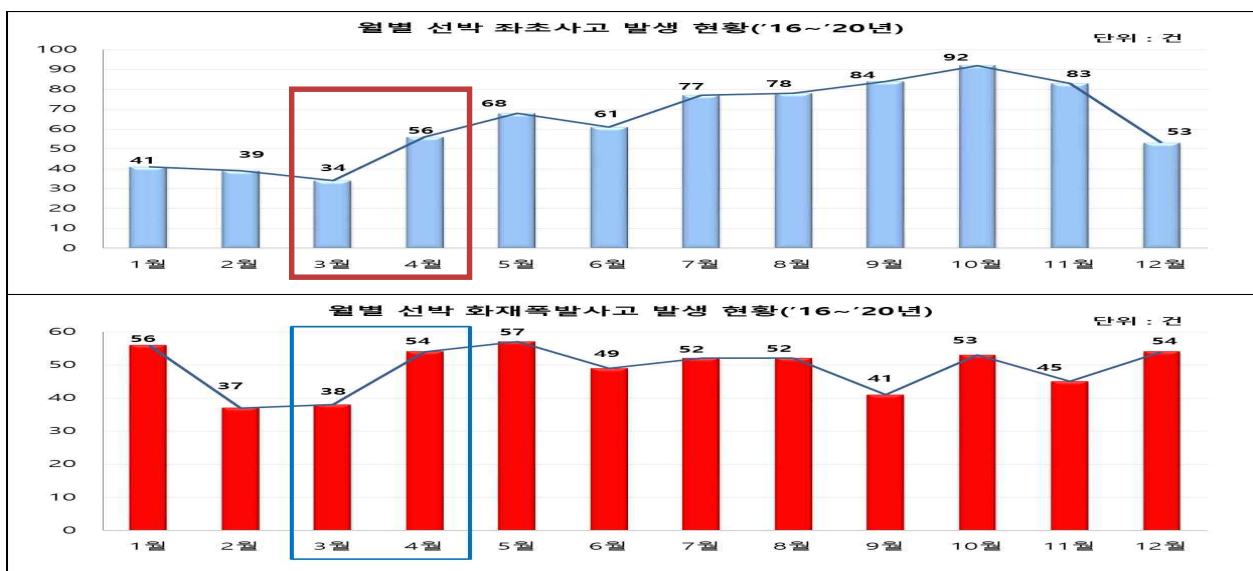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추이 분석 결과, 4월부터 해양사고 증가 추세 뚜렷(전월 대비 10% 증가)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86	144	176	193	235	234	244	258	308	300	244	216

유형	기관 손상	안전 저해	총돌	안전 사고	좌초	화재 폭발	해양 오염	전복	침몰	접촉	기타
건수	281	171	81	70	56	54	41	19	14	9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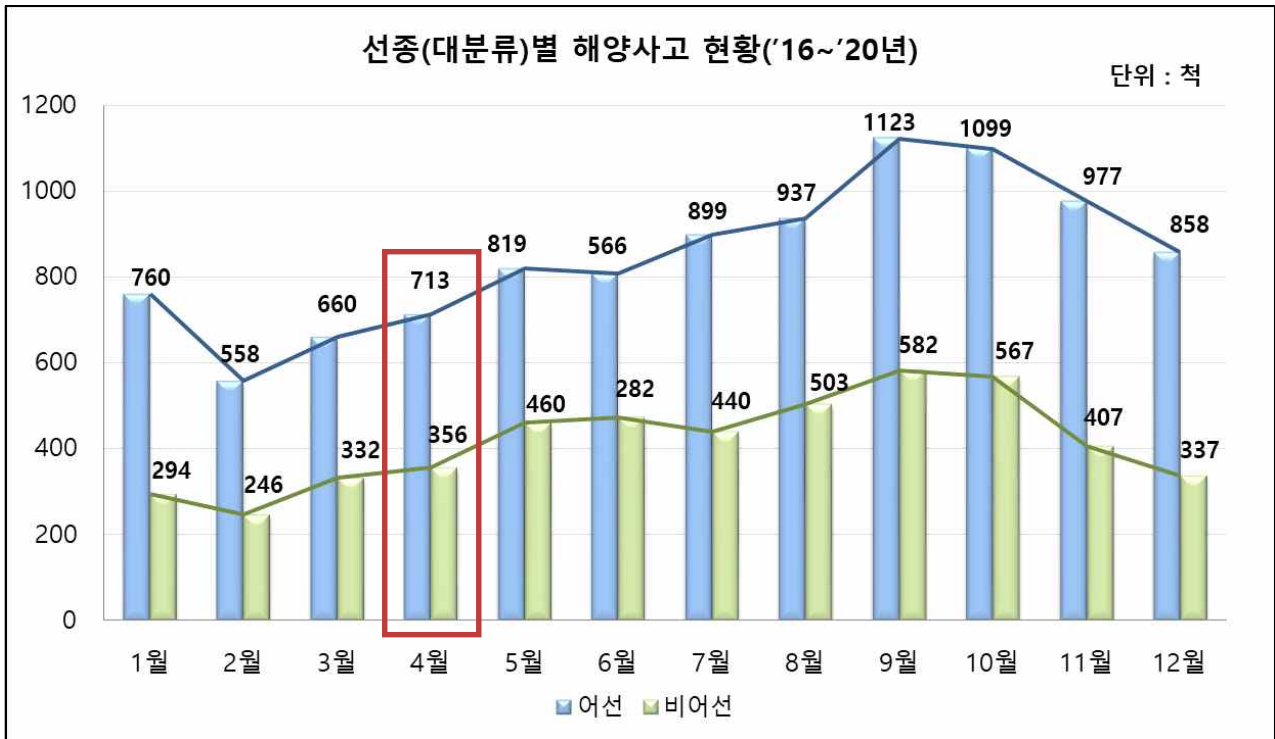
- 봄철 원거리 또는 무리한 운항사례가 늘어나면서 좌초 및 화재·폭발 사고 대폭 증가 등 해양사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

- (선박좌초) 전월 대비 65% 증가(34→56건),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 줄임운항 등 항해당직의 부적절한 수행이 주원인
- (화재폭발) 전월 대비 42% 증가(38→54건), 선내 전기설비 관리 부실 및 부적절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
  - \* 특히 휴식 중 당직자 미배치로 화재 발견 및 초기대응이 늦어져 대량 인명피해 유발
- (사고예방) 당직 중 경계 철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줄임운항 방지, 휴식 중에도 최소 1명의 당직원 배치 등 항상 적절한 당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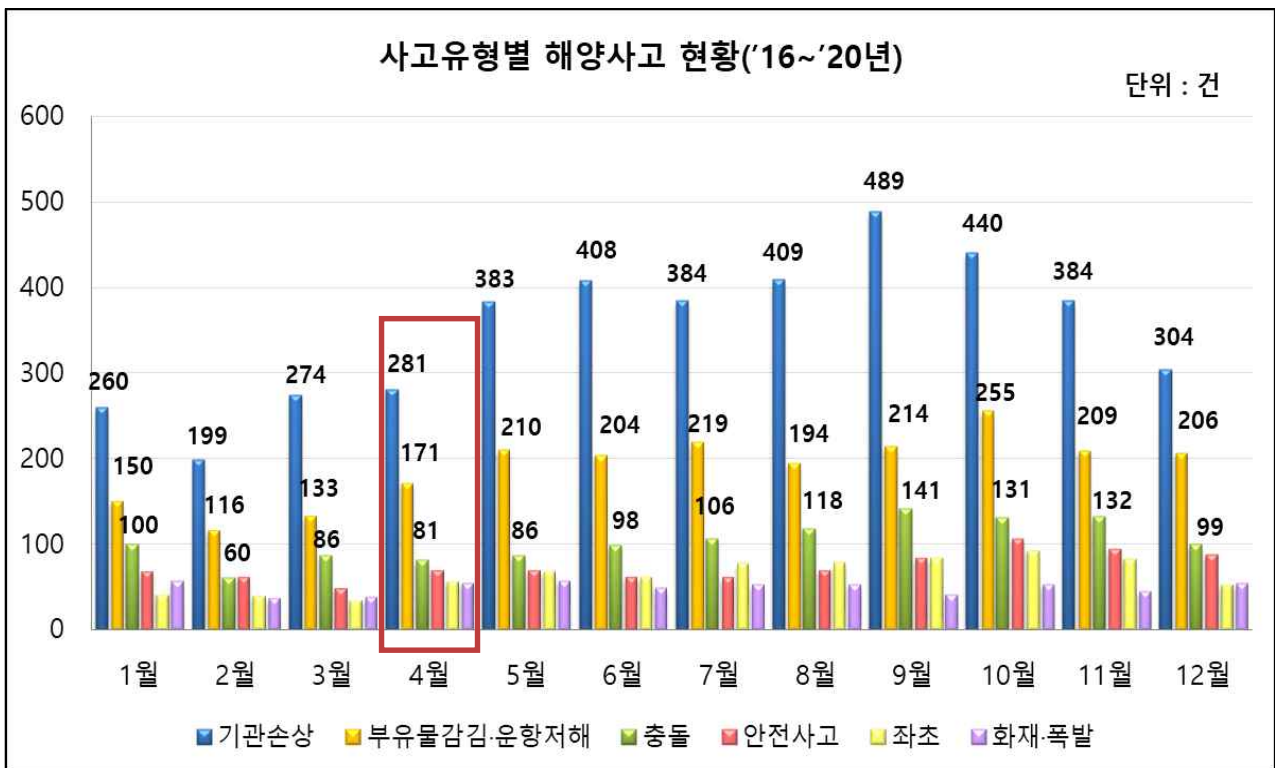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2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 4월 어황정보

### ○ 지난달(3월) 어황

- 3월(기간: 2.21~3.20)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고등어, 멸치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망치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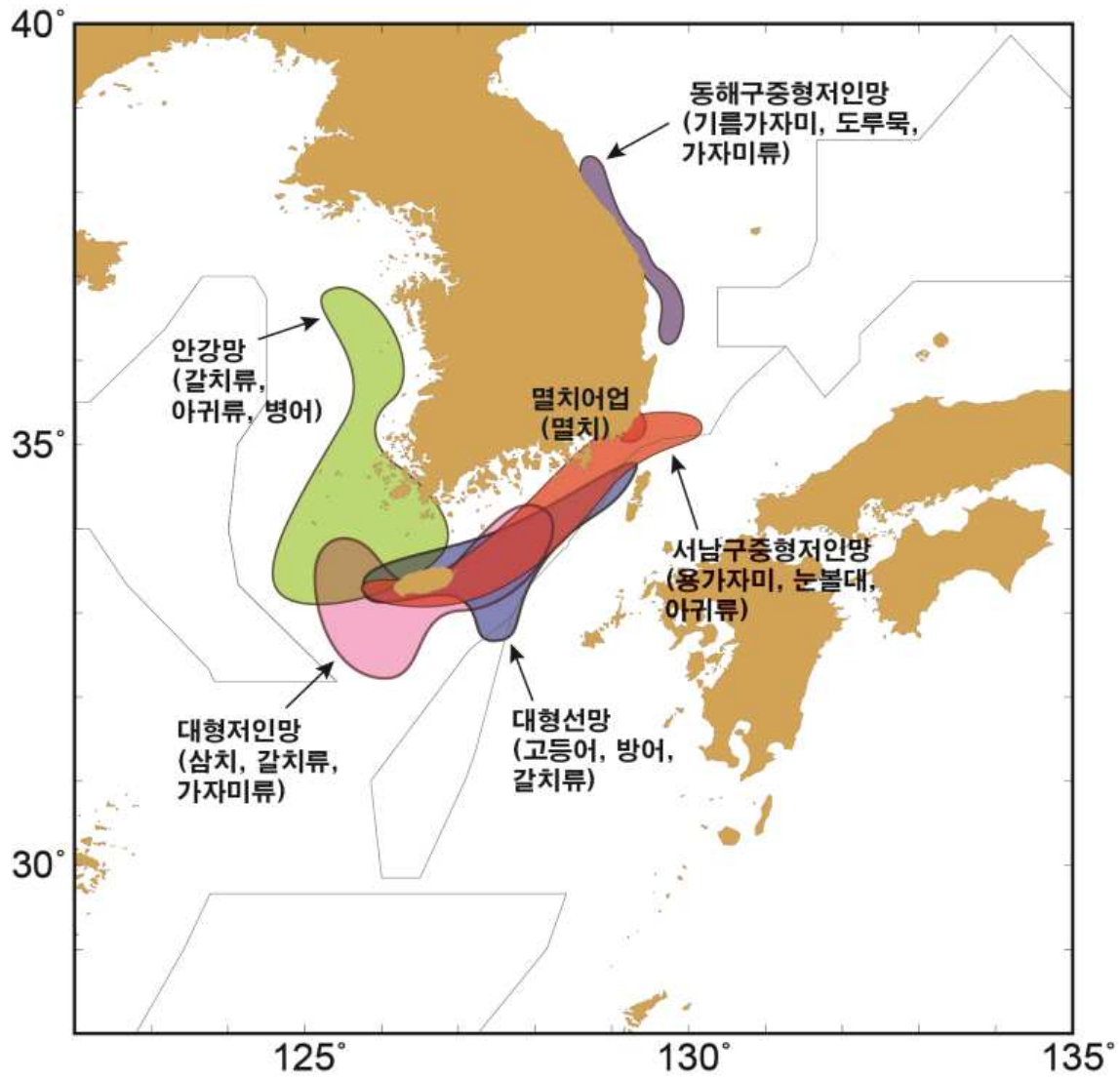
### ○ 4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갈치, 삼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 및 동부 근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멸치 주산란기를 맞아 3개월(4.1.~6.30.)간의 금어기에 들어가겠음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중부~제주도 북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갈치, 아귀류, 병어 등의 어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예상됨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주변 전역에 걸쳐 가자미류, 아귀류, 갑오징어류, 보구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용가자미, 눈볼대,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 및 남해 동부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과 경북 연근해를 중심으로 기름가자미, 도루묵,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저인망어업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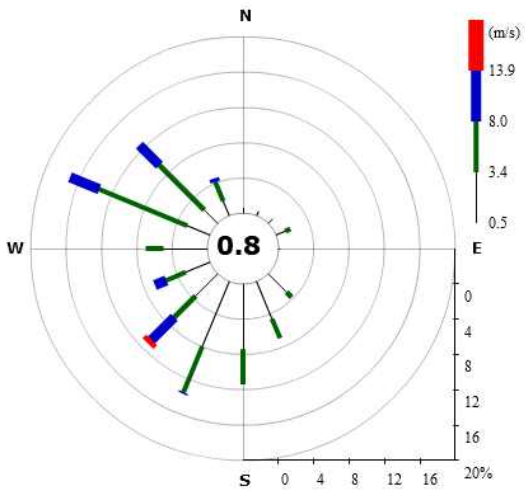
고 등 어	제주 서부해역과 대마도 북동쪽 일본해역에서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 서부해역과 남동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연중 한어기에 속해 전체어획량 감소로,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갱이	산란시기(2~4월)를 맞아 동중국해와 일본 규슈해역으로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우리 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낮아지겠다.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어군의 월동 및 산란 활동에 의해 동중국해에서의 어군밀도가 높은 시기로 연중 한어기(3~6월)를 맞겠고, 4~5월 동안 이어지는 금어기로 인해 조업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어기: 정치망은 제외,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어업은 4월 한 달간 실시.
멸치	울산~기장 근해로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봄철 어기가 시작되겠다. 주업종인 멸치권현망 어업은 주산란기(4~8월)를 맞은 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금어기가 시행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갈치	제주 북부 및 서부 근해를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연중 한어기(4~5월)로 어군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기	제주주변해역과 제주 서부 근해역에서 일부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연중 한어기로 어장은 한산하겠다. 주업종인 근해유자망어업은 참조기 산란시기(3~6월)를 맞아 금어기(4.22.~8.10.)에 들어가겠다.
망치고등어	망치고등어는 제주 주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황은 최근 이어지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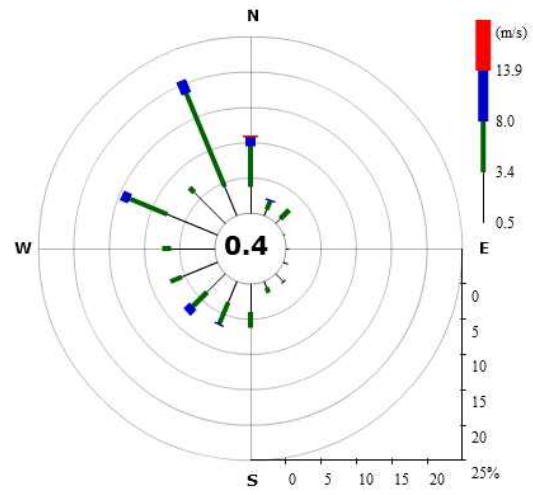
< 2021년 4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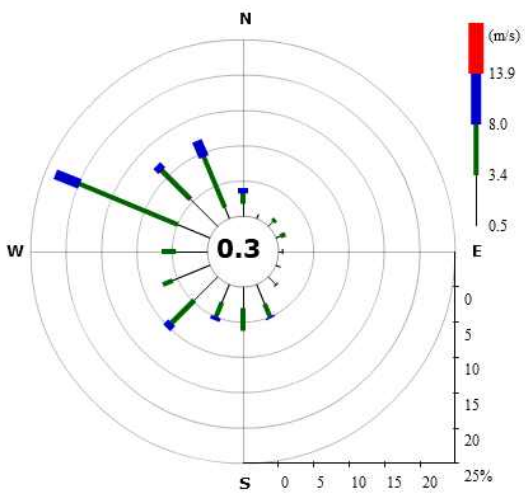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중부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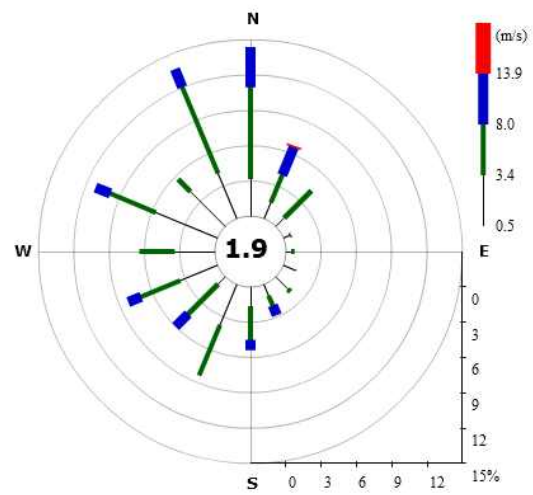
< 덕적도(서해중부 먼바다) >



< 외연도(서해중부 먼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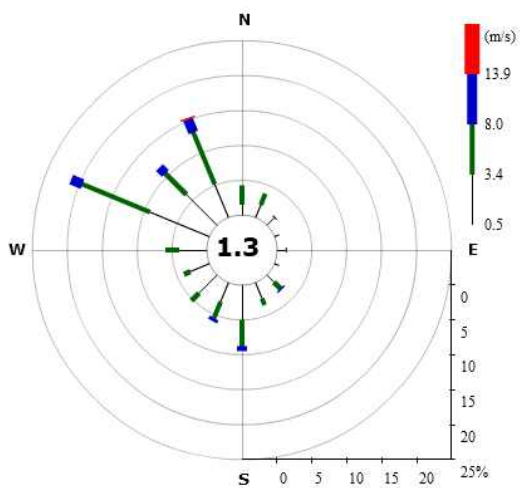
< 인천(서해중부 먼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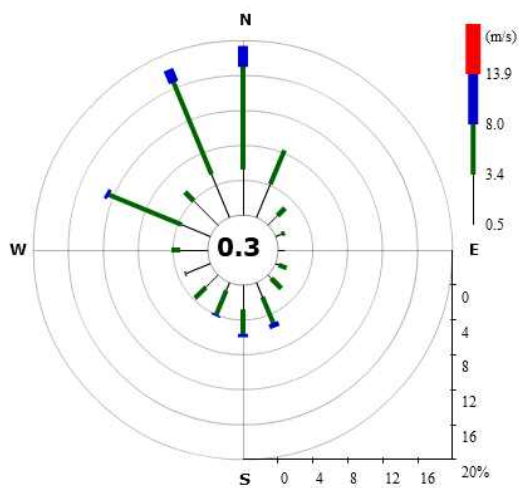
서해170(서해중부 먼바다)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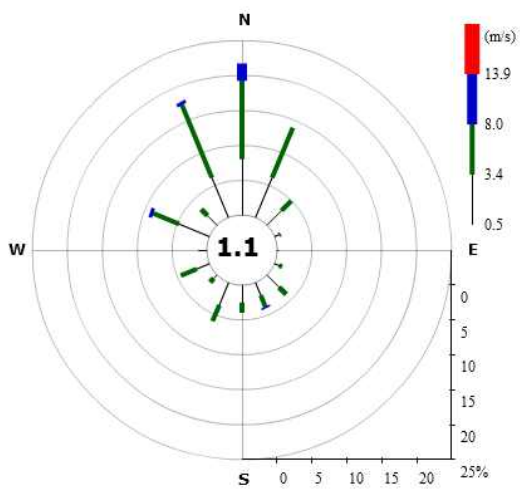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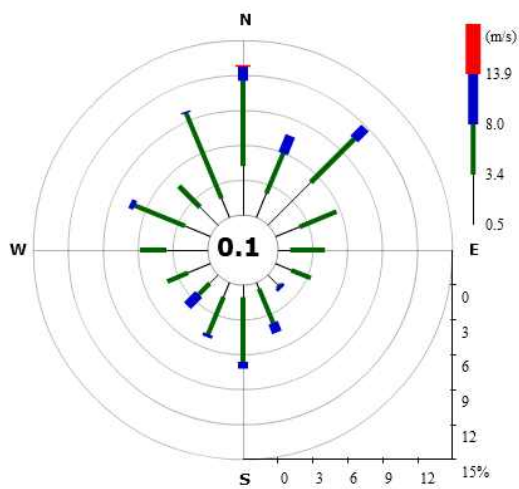
< 부안(서해남부 먼바다)>



< 칠발도(서해남부 먼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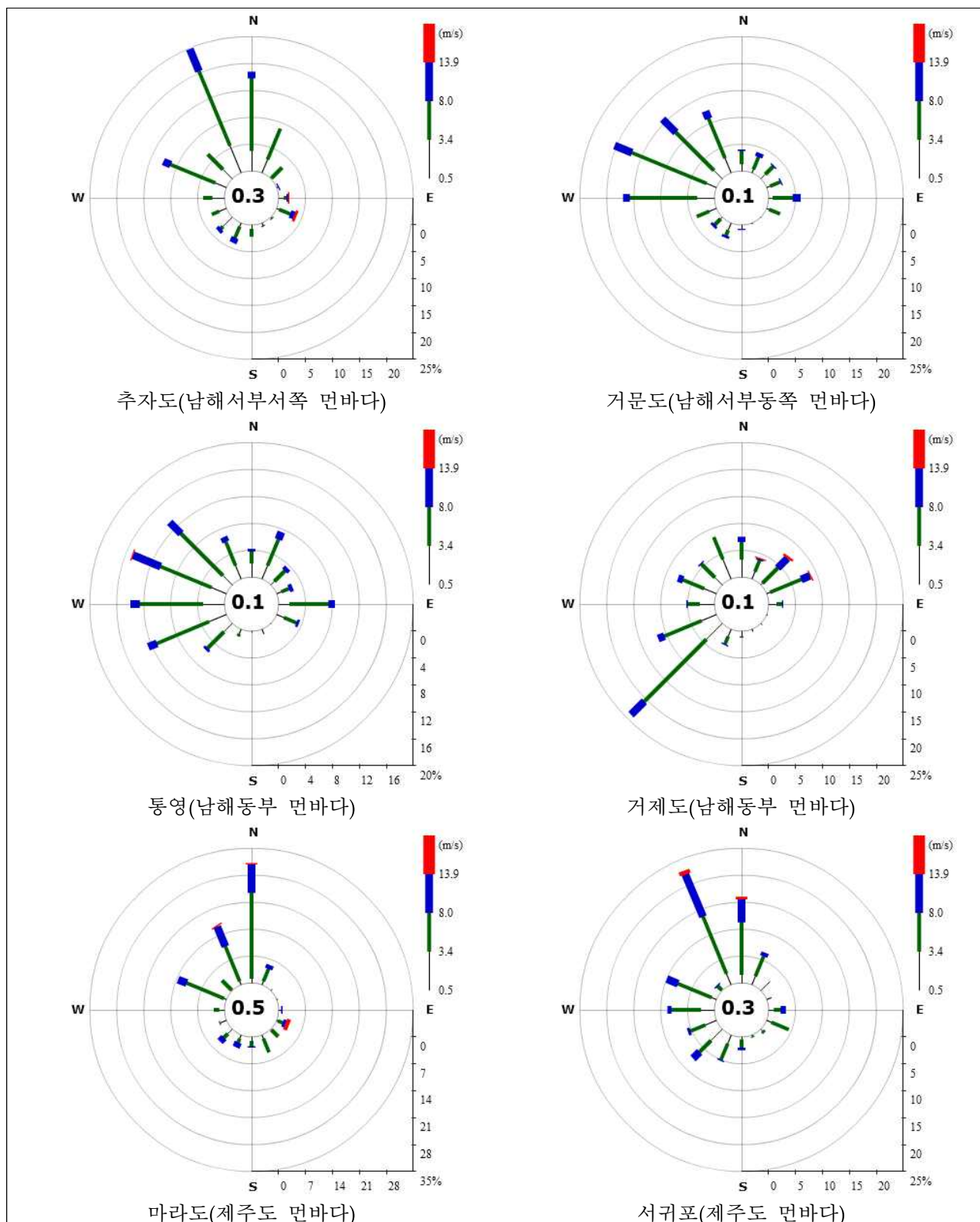
< 신안(서해남부 앞바다) >



서해206(서해남부 먼바다)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4월,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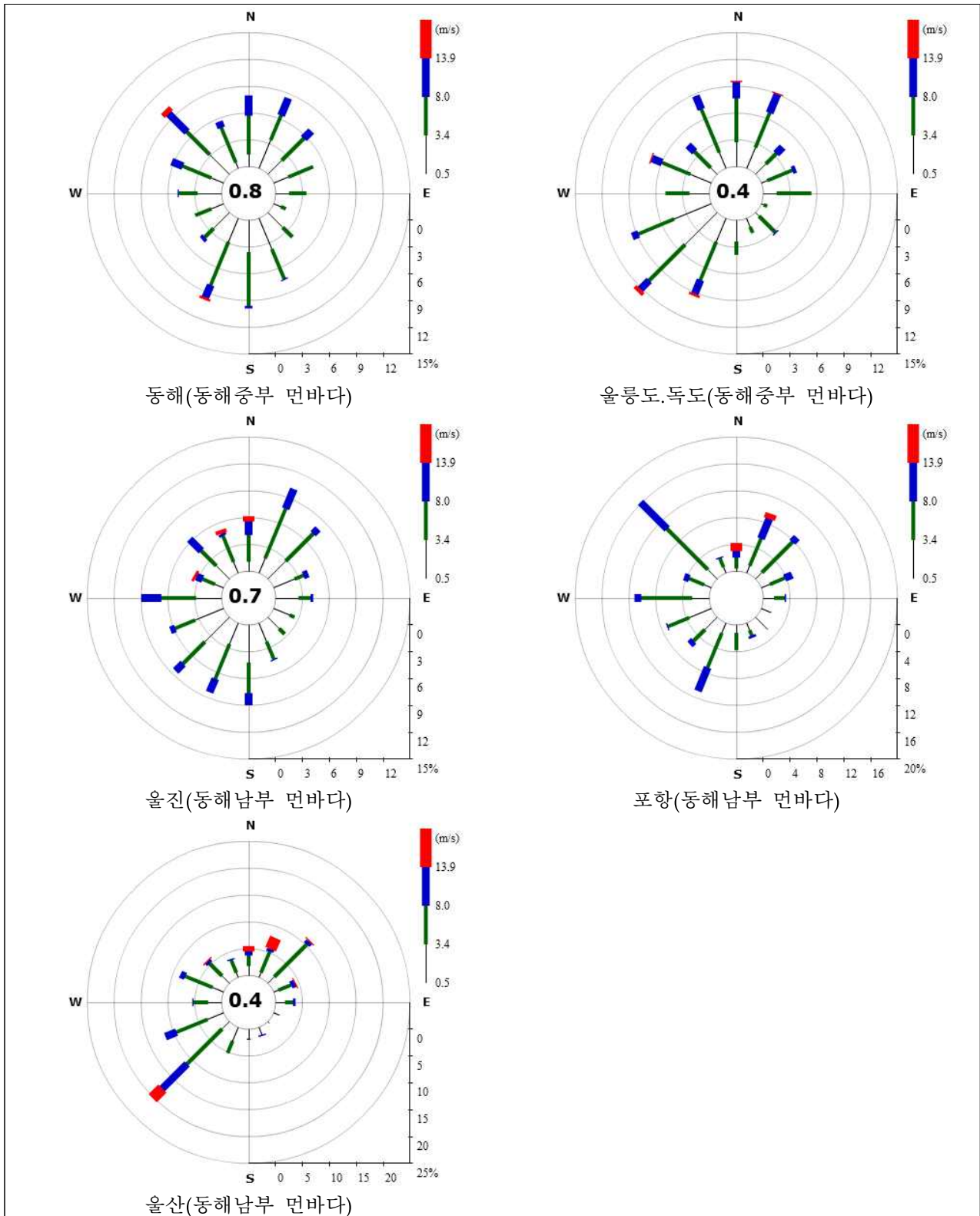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4월, 바람장미) >



4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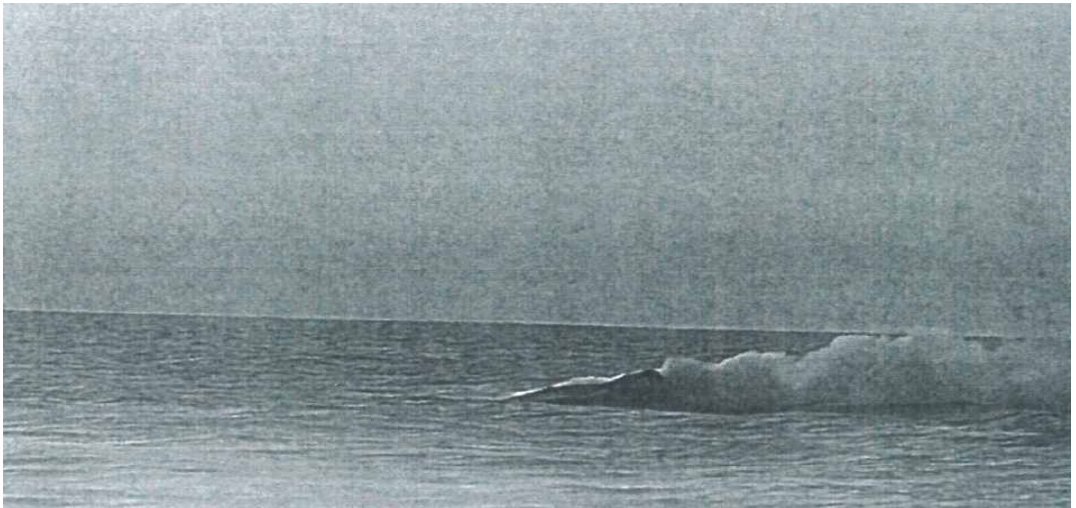


## 【부록 2】

##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1. 어선 A호 화재사건

사건명		어선 A호 화재 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9.77톤, 길이 14.40미터, 강화플라스틱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20. 4. 9. 03:00경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거리 약 24.5마일 해상
	피해	A호 침몰, 선원 6명 표류 중 구조되었으나 그 중 2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
	상황	조업 후 닻을 놓고 해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 발생, 조타실 및 선원실까지 연기가 가득 찬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전 선원이 바다에 뛰어내려 부표 및 방현재를 잡은 채 구조를 기다림
	날씨	맑은 날씨, 북서풍 초속 6~8m, 파고 약 1.0~1.5m, 시정 약 3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업 후 정박·대기 중 전선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당직 소홀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것도 일부 원인</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어선 선장은 비록 계속되는 항해 및 조업 중 당직으로 피로할지라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정박·대기할 경우에도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선장이 피로로 잠을 자야할 경우에는 조타실에 선원을 당직자로 배치하여야 함</li> <li>○ 소형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유증기, 선저 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기관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li> </ul>	
A호 침몰모습		

## 2. 어선 B호 좌초사건

사건명		어선 B호 좌초사건
사건개요	선박	B호: 낚시어선, 59톤, 길이 27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20. 5. 11. 23:56경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갈마당 앞 해상
	피해	B호 주기관 스크루 굽힘, 선저의 어군탐지기 안테나 손상
	상황	선장이 홀로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서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운항을 시작하였고, 결국 예정된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하여 해안가에 좌초
날씨	남서풍 초속 8~10m, 파고 약 1.5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장이 조업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항행을 지속하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음운항을 하여 사고 발생</li> </ul>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의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시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출항 전 미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li> <li>○ 선장은 항로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위험항로를 피하여 충돌 위험이나 좌초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여야 함</li> </ul>	
B호 항적도		